

광주시민협 'U대회 유치 활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 “국제도시 도약 기반... 재도전 필요” “경제 효과·도시 정체성 따져봐야”

광주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재도전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그동안의 유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9일 오후 동구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에서 '광주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활동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시와 2013 하계U대회 유치위, 시민단체, 체육계, 학계는 물론 국제행사 유치 경험이 있는 여수와 대구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가해 2013 U대회 유치활동과 2015년 대회 재도전을 놓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 “시민 설득과정 거쳐 합의·관심 끌어내야”

### ◇발표

▲김철주 조선대 체육대학장=2013년 U대회 유치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와 완벽한 행사 진행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강대국 러시아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한 채 실패해 아쉽다. 하지만 광주 역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유치 도전으로 국제도시 도약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세계 170개국에 광주와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왜 광주여야만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명확히 공개하여 주민들의 합의와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경쟁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물론 실패했을 때 대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실패 이후에도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 후유증을 최소화해 생산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 유치가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도전은 시민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조광현 대구경찰청 사무처장=국내 대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나서고 있지만 그 과정은 '국제도시'답게 투명하지는 않다. 고용·소득·생산유발·관광객 창출 등 효과와 과대포장되는 안된다. 다수의 시민들이 국제행사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 다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 ◇토론

▲이기신 광주시 도시마케팅 본부장=스포츠 행사만이 국제적으로 광주를 가장 빨리 알리는 길이다. 시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U대회 유치를 추진했다.

대회 유치예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공개해서도 안되고, 할 수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9일 오후 동구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에서 '광주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활동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광주 시민단체 제2차 토론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 없는 상황이다. 예산 비공개는 국제적 관례다. 국제 행사를 개최한 인천, 여수 등 한 곳도 공개한 사례가 없다. U대회 유치과정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겸허히 수용, U대회에 재도전한다면 심분 반영하겠다.

▲문상필 장애인생활체육회 사무처장=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체육 인프라가 열약하다. 광주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경우 도시 브랜드가 높아질 것이다. 대회를 유치할 경우 통일 문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광주 체육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U대회를 통한 광주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도시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U대회 유치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대회 유치를 20~30년이 걸리는 도시마케팅의 장기 전략에서 봐야 한다. 영국의 셰필드의 경우 U대회 개최 10년 후부터 대회 개최 효과가 나타났다.

U대회는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U대회는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도시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들을 선언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박상하 U대회 유치위원회 상임고문=대회 개최 효과가 없다면 왜 다른 나라들이 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시민 설득 과정이 없었다. 경제적 효과만 강조했다. 일본 교토의 경우 교토 의정서 체결로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 자리잡았다. 이런 게 도시 마케팅이다.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광주의 비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강렬 광주시민협 미래위원장=광주시가 U대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굳이 U대회를 유치하지 않고서도 광주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광주의 자매도시, 우호도시와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U대회 유치 실패의 정확한 내용, 대회 유체에 사용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민들이 타당하다면 재도전을 추진하는 것

도 좋다고 생각한다. ▲신성진 광주전남 인민련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가 비판과 감시, 견제기능을 상실해 부끄러운 상황이다. 지역 언론의 문제도 제대로 봐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놓고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역의 발전, 지역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행사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행사를 유치해서는 안된다.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U대회 유치에 도전했을 때 오늘 같은 과정이 많이 있었어야 했다. U대회 개최가 광주의 비전에

도 좋다고 생각한다.

▲신성진 광주전남 인민련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가 비판과 감시, 견제기능을 상실해 부끄러운 상황이다. 지역 언론의 문제도 제대로 봐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놓고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역의 발전, 지역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행사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행사를 유치해서는 안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1기분 재산세 광주 298억, 전남 699억

### 전년보다 8.9%, 9.6% 증가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1기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로 모두 997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2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9%, 전남도는 699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이는 과표 적용률이 주택은 50%에서 55%로, 건축물은 60%에서 65%로 인상된 탓이다.

광주지역 자치구별로는 북구와 서구가 각각 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66억원, 남구 36억원, 동구 32억원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기아자동차가 4억3천2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쇼핑이 2억5천43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의 경우 여수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이 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최고액 납세자는 33억원이 부과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이었다.

1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으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

시·도는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보다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안내서 역 근처 명소 표기 혼돈 불러”

## “비상시 탈출방법 자세히 안내해달라”

### 광주지하철 고객 간담회

‘비상시 탈출방법을 보다 자세히 안내해달라’ ‘전동차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늘려야 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9일 현장 밀착 경영을 위해 서구 마북동 공사 상황실에서 개최한 ‘고객 초청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는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회사원인 김상현(46)씨는 “지하철 이용 안내서의 역 근처 명소 표기가 혼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학생 고객인 김대희(20)씨는 “스크린도어 설치역의 경우 비상시 탈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고객은 “노약자들이

좀 더 편하게 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승강장 전광판과 전동차내 모니터를 통해 탈출방법에 대한 홍보를 늘리고 승강장과 선로 양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제안에 대해서도 지하철 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오행원 사장은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모니터제도, 옴부즈맨제도 운영 등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서비스 질과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 재난대비 구조 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1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에서 ‘2008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이번 훈련은 광주시를 비롯 30개 기관에서 장비 63대와 607명의 인원이 참가해 인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와 상황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훈련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황령강과 장성 일대가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송산유원지 내 피서객 일부가 고립·실종되고 독이 붓겨오는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유원지에 고립된 피서객을 헬기와 보트, 로프 등을 동원해 구조하는 훈련이 실제처럼 전개된다. /정후식기자 who@